

## 祝 辭

2016. 10. 24(월) 14:00~16:00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 종 룡

##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먼저,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 행사와  
「제12차 핀테크 Demo Day」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및 협회,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YIP Wei Kiat(입 웨이 키앗) 싱가포르 대사님과  
Sue Kinoshita(수 키노시타) 영국 대리대사님을 비롯해서  
주한 외교관 여러분들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Demo Day 행사로는 처음으로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분들도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정유신 센터장님과 지원센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 II. 핀테크 협력 MOU 체결 및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

오늘은 핀테크 기업의 기술 시연 외에도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핀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합니다.

지난 7월 영국 FCA와 체결한 MOU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해외 금융당국과 체결하는  
두 번째 MOU입니다.

이번 MOU는 한국과 싱가포르 금융당국간  
핀테크 관련 정보 교류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 공유, 공동 프로젝트 검토 등  
다양한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금융당국간 협력관계를 토대로  
양국 핀테크 기업들이 서로 경쟁·협력하면서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핀테크 통합포털도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핀테크 통합포털에서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핀테크 정보와 업계 동향을  
한자리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핀테크 기업은 통합포털에서 자신을 홍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일반국민은 핀테크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핀테크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이용자가 교류하는  
활력있는 온라인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 III. 핀테크 육성 정책의 성과

---

처음 핀테크 정책을 발표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핀테크 육성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먼저,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Demo Day를 개최하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동남아, 런던 등 해외 Demo Day를 잇달아 개최하여 우리 핀테크 기업을 해외시장에 널리 소개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썼습니다.

그 결과, 핀테크 사업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서비스가 다수 출시되고 바이오인증, 비대면 본인확인도 가능해졌습니다.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스타트업들이 십시일반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조만간 인터넷 전문은행이 서비스를 개시하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지면 핀테크를 통한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핀테크 업계의 열정과 노력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핀테크 업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IV.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

여러분,

그간의 노력으로 핀테크 산업 발전의 토대는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의 정책이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2단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계속되는 혁신에 발맞추어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집중하였다면 2단계에서는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각종 규제와 관행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통화, 블록체인 등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새로운 기술과 금융서비스의 융합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연내 출범하여 국제 흐름보다 한발 앞서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일본 등 국제적인 디지털 통화(Digital Currencies) 제도화 흐름에 맞추어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를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이제 기반을 갖추기 시작한 핀테크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지난해 3월 출범한  
「핀테크 지원센터」의 서비스에 만족하면서도  
투자 연계, 해외진출 지원 등 기능 확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고  
2단계 로드맵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향후 3년간 3조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생태계의 마중물로 활용하겠습니다.

\* ('16년) 5천억원(산은기은) → ('17~'19년) 3조원(산은기은·신보·기보·성장사다리펀드)

이와 함께,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지원기관을 망라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V. 마무리 말씀

여러분,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산업 각 분야에 접목되면서  
세계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분야도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Demo Day에 소개되는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변화가 이미 진행중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자동화 알고리즘에 기반한 로보어드바이저,  
스마트폰 스캔을 통한 금융계약 진위확인 서비스,  
건축, 인테리어 사업의 진행과 대금 지급을  
통합관리하는 서비스 등

금융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과 금융거래의 양태(behavior)를 바꾸어 놓는  
변화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자본금의 크기, 직원 수, 점포망의 규모 같은 외형은  
앞으로의 금융에서 생존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혁신과 변화를 위한 비전**을 나누고  
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열정**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Demo Day 개최와 핀테크 통합포털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